

2010학년도 중등교사신규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도덕 · 윤리

2차 시험	1교시	2문항 50점	시험 시간 120분
-------	-----	---------	------------

수험생 유의 사항

- 문제지(초안 작성 용지 포함)와 답안지의 전체 면 수와 인쇄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답안지는 문항당 2쪽(교시당 4쪽), 초안 작성 용지는 교시당 4쪽입니다. 답안은 문항당 2쪽 이내로만 작성하여야 합니다.
- 답안지 모든 면의 상단에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성명과 수험 번호를 기재하고, 수험 번호, 문항 번호, 문항별 답안지 쪽 번호를 해당란에 '●'로 표기하십시오. '●'로 표기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정 테이프를 사용해야 합니다.
- 답안은 지워지거나 번지지 않는 동일한 종류의 흑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작성하십시오(연필이나 사인펜 종류는 사용할 수 없음).
- 답안 좌측 상단에 문항 번호와 답안지 쪽 번호, 과목명을 직접 쓰고 답안을 작성하십시오.

(예시) 국어 과목의 1교시 1번 문항, 2번째 답안지 표기

문항 번호 및 쪽 번호 표기란	
● ② (문항 번호)	① ● (문항 쪽 번호)
↑ (1)번 문항의	↑ (2)번째 답안지
과목명(국 어)	

- 수학, 과학 과목의 답안지는 가운데 선을 그어 좌우의 2단으로 나누어 답안을 작성해도 됩니다.
- 답안지에는 문항 번호 외에 문항 내용을 일체 옮겨 적지 마시오. 단, 하위 문항이 있을 경우, 하위 문항의 번호(1-1, 1-2 등)를 답안지 앞부분에 한 번 더 쓰고 답안을 작성하십시오.
- 답안은 문항별로 답안지의 새로운 면에 작성하고(단, 하위 문항은 이어서 작성해도 됨), 해당 문항의 답안 작성이 완료되면 **답안 마지막 문장의 뒤에 반드시 <끝>이라고 쓰시오.**
- 답안 초안 작성은 문제지의 맨 뒷부분에 있는 초안 작성 용지를 활용하십시오.
- 답안 수정 시에는 해당 부분에 두 줄(=)을 긋고 수정 내용을 쓰시오.
- 다음에 해당하는 답안은 채점하지 않습니다.
 - 연필로 작성한 부분
 - 수정 테이프나 수정액을 사용하여 수정한 부분
 - 답안란 이외에 작성한 부분
 - 답안란에 개인 정보를 노출한 답안지 전체
 - 답안란에 개인 정보를 암시하는 표시가 있는 답안지 전체
 - 문항당 답안지 2쪽을 초과하여 작성한 부분
- 답안지 교체 시 시험 종료 전까지 답안 작성을 완료해야 합니다. 시험 종료 후 답안 작성은 부정 행위로 간주됩니다.
- 답안을 작성하지 않은 빈 답안지도 성명, 수험 번호, 문항 번호, 문항 쪽 번호를 기재·표기한 후, 순서대로 정리하여 4쪽 모두 제출하십시오.

-
1. 도덕과의 성격이 (가)에서 (나)로 변화된 이유를 교과와 정체성 확립 차원에서 밝히고, (다)의 블라지(A. Blasi) 이론을 콜버그(L. Kohlberg) 이론과 비교하여 서술한 후, (다)의 이론이 (나)에서 밑줄 친 교과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줄 수 있는 시사점을 3가지 제시하시오. 【30점】

(가) 도덕과는 인성 교육과 민주 시민 교육,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시되고 있는 통일 대비 교육과 국가 안보 교육을 핵심 영역으로 다루고 있는 교과이다. 이를 위해 도덕과에서는 규범과학적 관점과 사회과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학제적인 접근을 시도한다.

(나) 도덕과는 다양한 도덕 문제에 대한 성찰과 탐구를 통해 바람직한 가치관을 확립하여 각자 자율적이고 통합적인 인격을 형성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는 교과이다. 이를 위해 도덕과에서는 윤리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하되, 연관된 여러 학문의 접근 방법을 활용한다.

(다) 가장 높은 정도의 도덕적 통합이 이루어진 상태는 도덕적 이해(moral understanding)와 관심이 각자가 자신을 바라보고 정의하는 특별한 관점인 자아 개념의 한 부분이 될 때이다. 자아모형(the self model)을 통해 볼 때, 책임 판단으로부터 행동으로의 이행은 성격 형성의 핵심적인 경향, 즉 자아일치(self-consistency)의 경향에 의해 뒷받침된다.

2. 다음 (가), (나)를 주장한 사상가의 관점 차이를 <보기>를 중심으로 비교하여 논하시오. 【20점】

(가) 지극히 바른 도(道)를 실천하는 사람은 타고난 본성[性命]의 바른 모습을 잃지 않는다. 그러므로 발가락 사이에 이어 붙은 살이나 육손이의 갈라져 나온 손가락을 굳더더기로 여기지 않는다. 이런 까닭에 오리의 다리는 짧지만 그것을 길게 이어 붙이면 불편해 하고, 학의 다리가 길지만 그것을 짧게 잘라주면 슬퍼한다. 따라서 선천적으로 긴 것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그것을 잘라내서는 안 되며, 자연적으로 짧은 것을 가지고 나왔다면 그것을 이어 붙여서도 안 된다. 더구나 그것을 근심거리로 삼아 제거할 일도 아니다. 생각하건대 인의(仁義)란 인간의 자연스런 본성[人情]이 아닐 것이다. [왜냐 하면 인의라는 것이 천성적인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부담스럽게 여길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왜 이토록 이것을 불편하게 여기고 슬퍼하는 것일까!

(나) 무릇 예의(禮義)라는 것은 성인의 인위적인 노력[僞]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지 사람의 본성[性]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옹기장이가 진흙을 반죽하여 질그릇을 만드는데, 질그릇은 옹기장이의 인위적인 노력의 결과물이지만 타고난 본성의 소산이 아니다. 또 목공이 나무를 깎아 그릇을 만드는데, 그릇은 타고난 능력의 소산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획득된 숙련의 소산이다. 마찬가지로 성인이 예의를 제정하고 법도를 제정한 것도 오랜 기간의 사려와 숙련의 결과로서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예의와 법도는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성인의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보 기>

- 인간 본성
- 인간 본성과 도덕 규범[仁, 義, 禮]의 관계
- 이상적 인격[聖人]
- 교육 방법

수고하셨습니다